

유란시아서

<< [제 68 편](#) | [부분](#) | [내용](#) | [제 70 편](#) >>

제 69 편

원시적 인간 제도

69:0.1 (772.1) 감정 면에서, 사람이 유머 · 예술 · 종교를 이해하는 능력은 그의 동물 조상을 뛰어넘는다. 사회적으로, 사람은 연장을 만들고 의사(意思)를 교환하고 제도를 만드는 자이므로 그의 우수성을 드러낸다.

69:0.2 (772.2) 인간이 오랫동안 사회 집단을 유지할 때, 그러한 집합은 궁극에 제도화되는 어떤 활동 경향을 반드시 낳는다. 인간의 제도의 대부분은 노동을 절약하고, 동시에 집단 안전의 향상에 무언가 이바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69:0.3 (772.3) 문명화된 사람은 그가 확립한 제도의 특성, 제도가 안정되고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진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제도는 다만, 금기(禁忌)가 보존하고 종교가 위엄을 부여함으로써 축적된 지난날의 도덕 관습에 불과하다. 그러한 유산은 전통이 되고, 전통은 궁극에 관습으로 모습을 바꾼다.

1. 기본적 인간 제도

69:1.1 (772.4) 제도의 지나친 발전은, 인격이 빛을 잃고 창의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김없이 개인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런데도, 인간의 제도는 모두 어떤 사회적 필요, 지난날이나 오늘의 필요를 보살핀다. 사람은 진보하는 문명이 만든 이 작품에 자신이 지배되도록 버려두기보다 그 제도를 통제해야 한다.

69:1.2 (772.5) 인간의 제도는 세 가지 일반 등급이 있다:

69:1.3 (772.6) 1. 자아 유지 제도. 이러한 제도는 굶주림과 이에 관계된 자아 보존 본능에서 생겨나는 관습을 포함한다. 이런 제도는 산업과 재산, 이익을 위한 전쟁, 그리고 사회의 모든 통제 작용을 포함한다. 조만간에 두려움의 본능은 금기, 관습, 종교적 제재의 수단을 써서, 생존을 위한 이런 제도의 확립을 촉진한다. 그러나 두려움 · 무지 · 미신은 모든 인간 제도가 초기에 기원을 가지고 후일에 발전하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해냈다.

69:1.4 (772.7) 2. 자아 영속 제도. 이러한 제도는 성욕, 모성 본능, 그리고 종족들의 부드러운 상급 감정에서 생겨나는, 사회가 세운 질서이다. 이것은 가정과 학교, 가족 생활, 교육 · 윤리 · 종교를 보호하는 사회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제도는 결혼 관습, 방어를 위한 전쟁, 가정 만들기를 포함한다.

69:1.5 (772.8) 3.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 이것은 허영심의 성향과 자부심의 감정에서 생겨나는 관습이다. 이것은 옷을 입고 몸을

치장하는 풍습, 사회의 관행, 영광을 위한 전쟁 · 춤 · 흥행 · 놀이, 그리고 관능을 만족시키는 다른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문명은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뚜렷한 제도를 결코 진화한 적이 없다.

69:1.6 (773.1) 이 세 집단의 사회 관습은 밀접하게 서로 관계되고, 미세하게 서로 의존한다. **유란시아**에서 이 여러 제도는 단일 사회 기구로서 활동하는 복잡한 조직이 된다.

2. 산업의 시작

69:2.1 (773.2) 원시 산업은 끔찍한 기근을 막는 보험으로서 천천히 생겨났다. 옛날에 살던 사람은 풍부한 수확이 있는 동안에 빈곤한 시절에 대비하여 먹을 것을 저축한 몇몇 동물로부터 교훈을 받기 시작했다.

69:2.2 (773.3) 초기의 검소와 원시 산업이 시작되기 전에, 보통 부족의 운명은 궁핍과 진짜 고통이 가득한 운명이었다. 원시 인간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동물 세계 전체와 경쟁해야 했다. 경쟁의 당기는 힘은 늘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가난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가혹한 상태였다. 재산은 저절로 생기는 선물이 아니요, 노동과 지식과 조직으로부터 생긴다.

69:2.3 (773.4) 원시인은 교제(交際)의 이점을 더디게 깨닫지 않았다. 교제는 사람을 조직하도록 이끌었고, 조직의 처음 결과는 노동의 분업이었으며, 그 결과로 시간과 물자가 즉시 절약되었다. 이 노동의 전문화는 압력에 적응함으로 — 저항이 약한 길을 추구함으로 — 생겨났다. 원시의 야만인은 결코 어떤 진짜 일도 즐겁게 하지 않았고

기꺼이 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순응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69:2.4 (773.5) 원시인은 고된 일을 싫어했고, 심각한 위험에 부딪치지 않으면 서두르려 하지 않았다. 노동에서 시간 요소, 주어진 과제를 특정한 시간 안에 해치우는 생각은 전적으로 현대에 생긴 개념이다. 옛날 사람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한 맹렬한 싸움과 늘 높아지는 생활 수준의 이중 요구가 원시 인간, 자연히 활동하지 않는 종족을 근면의 길로 몰았다.

69:2.5 (773.6) 노동, 일부러 기울이는 노력은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며, 짐승의 노력은 대체로 본능적이다. 노동의 필요성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영주**의 참모진은 다 일했고, **유란시아**에서 육체 노동을 고상하게 만들려고 많이 공헌했다. **아담**은 **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일했다 — 그는 만물을 창조하는 이, 지원하는 이였다. **히브리인**은 근면을 최고로 친 처음 부족이었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하고 처음으로 선포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는 초기의 이상(理想), 게으름으로 되돌아갔다. **주피터**는 술 잔치하는 이였고, **부다**는 명상에 잠겨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69:2.6 (773.7) **산직** 부족들은 열대에서 떨어져 살 때, 상당히 부지런했다. 그러나 게으른, 마술 추종자와 일하기를 외치는 사도(使徒) — 선견을 이용한 자들 — 사이에는 길고 긴 싸움이 있었다.

69:2.7 (773.8) 인간은 불과 물과 먹을 것을 보존하는 데 처음으로 선견을 이용했다. 그러나 원시인은 날 때부터 노름꾼이었다. 원시인은 언제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언가 얻기를 바랐으며, 이 옛 시절에 너무나 자주, 참는 관습에서 얻은 성공을 마력의 탓으로 돌렸다. 요술은 선견 · 절제 · 산업에게 느리게 길을 비켰다.

3. 노동의 전문화

69:3.1 (773.9) 원시 사회에서 노동의 분업은 자연스런 상황에 따라서, 다음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다. 초기에 노동이 전문화되는 체제는 다음과 같았다:

69:3.2 (774.1) 1. 남녀 구별에 따른 전문화. 선택하여 아이가 있게 되면서 여자의 일이 생겨났다. 여자는 자연히 남자보다 아기들을 더 사랑했다. 이처럼 여자는 일상적인 일꾼이 되었고, 한편 남자는 사냥꾼과 투사가 되어서, 집중하여 일하고 쉬는 기간이 있었다.

69:3.3 (774.2) 오랜 세월에 걸쳐 내내, 금기(禁忌)는 여자를 자기 발에 꼭 붙잡아 두도록 작용했다. 남자는 아주 이기적으로 더 편한 일을 골랐고, 일상적인 고된 일을 여자에게 맡겼다. 남자는 언제나 여자의 일하기를 부끄러워했지만, 여자는 남자의 일을 하는 것을 결코 거리끼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기록하기 이상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집을 짓고 장만하는 데 언제나 같이 일했다.

69:3.4 (774.3) 2. 나이와 질병에 따라서 생기는 수정. 이 차이는 다음의 노동 분업을 결정했다. 늙은 남자와 병든 자는 일찍이 연장과 무기(武器)를 만드는 데 종사했다. 그들은 나중에 관개 시설을 만드는 데 배치되었다.

69:3.5 (774.4) 3. 종교에 기초를 둔 분화. 주술사(呪術師)는 처음으로 육체 노동에서 면제된 인간이었다. 그들은 전문 직종의 개척자였다. 대장장이는 마술을 쓰는 주술사와 경쟁한 작은 집단이었다. 금속을

가지고 일하는 그들의 솜씨는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 “흰 대장장이”와 “검은 대장장이”는^[73] 백마술과 흑마술을 믿는 초기의 신앙을 낳았다. 이 신앙은 나중에, 착한 귀신과 악한 귀신, 곧 착한 영과 악한 영을 믿는 미신과 결부되었다.

69:3.6 (774.5) 대장장이는 특권을 누린 첫 비종교 집단이었다. 그들은 전쟁 동안에 중립자로 간주되었고, 이렇게 남는 여가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원시 사회의 정치가가 되게 만들었다. 이 특권을 지나치게 악용함으로 대장장이들은 널리 미움을 받게 되었고, 주술사는 기회를 놓칠세라 경쟁자를 미워하도록 부추겼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 있는 이 첫 싸움에서 종교(미신)가 이겼다. 마을에서 쫓겨난 뒤에, 대장장이들은 촌락의 변두리에 첫 여인숙, 곧 대중을 위한 하숙집을 만들었다.

69:3.7 (774.6) 4. 주인과 종. 노동의 다음 분화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에서 생겨났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예 제도가 시작된 것을 의미했다.

69:3.8 (774.7) 5. 다양한 신체 및 정신 자질에 기초를 둔 분화. 사람의 타고난 차이가 노동의 계속된 분업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태어나지 않는다.

69:3.9 (774.8) 산업에서 초기의 전문가는 부싯돌 벗기는 자와 석공이었고, 그 다음에는 대장장이가 뒤따랐다. 그 뒤에 집단의 전문화가 생겼다. 온 가족과 씨족이 어떤 종류의 노동에 종사했다. 부족의 주술사를 제쳐 놓고, 가장 일찍 있었던 사제 계급 중에 하나는 칼 만드는 전문가들의 집단을 미신으로 높이 섬겼기 때문에 생겨났다.

69:3.10 (774.9) 산업에서 처음 집단 전문가는 돌소금 수출상과 도공(陶工)이었다. 여자는 평범한 오지그릇을 만들었고 남자는 화려한 것을 만들었다. 어떤 부족 사이에서는 여자가 바느질하고 천을 짰고, 다른 부족에서는 남자가 그 일을 했다.

69:3.11 (774.10) 초기의 상인은 여자였는데, 여자는 첩자로 고용되었고 상업(副業)을 부업(副業)으로 했다. 이내 무역이 확대되고, 여자는 중개인 — 중매인 — 으로 행동했다. 다음에 상인 계급이 나타났고, 그들이 봉사한 대가로 수수료, 곧 이익을 받았다. 집단의 물물 교환이 성장한 것은 상업으로 발전했고, 상품 교환에 뒤이어서 기술 노동자의 교환이 생겼다.

4. 무역의 시작

69:4.1 (775.1) 여자를 사로잡아서 치르는 결혼 다음에 계약 결혼이 따랐던 것처럼, 침공으로 생긴 약탈 뒤에는 물물 교역이 뒤따랐다. 그러나 말없이 물물 교환을 하는 초기의 관습과 후일에 현대의 교환 방법으로 무역하는 사이에 해적(海賊) 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69:4.2 (775.2) 무장(武裝)한 무역상들이 처음 물물 교환을 했으며, 그들은 중간 지점에 물건을 놓아 두곤 했다. 여자들이 처음으로 시장을 열었고, 여자는 아주 일찍부터 있었던 상인(商人)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짐꾼이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무사(武士)였다. 아주 일찍부터 무역 계산대가 발달되었고, 이것은 상인들이 무기로 서로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충분히 넓은 벽이었다.

69:4.3 (775.3) 말없이 물물 교환을 위해서 말긴 물품을 지키려고 주물이 사용되었다. 그러한 시장은 도둑맞을 염려가 없었다. 물물 교환을

하거나 사지 않으면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은 했다. 주물이 지키고 있으면 상품은 언제나 안전했다. 초기의 상인은 자신의 부족 안에서 면밀하게 정직했지만, 먼 데서 온 낯선 사람을 속이는 것은 괜찮게 여겼다. 초기의 **히브리**인조차 이방인과 거래하는 데 다른 윤리 규정을 인정했다.

69:4.4 (775.4)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고 신성한 시장에서 만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말없는 물물 교환이 계속되었다. 바로 이런 장터는 첫 성소(聖所)의 자리가 되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나중에 “피난의 도시”로 알려졌다. 어떤 피난자가 시장에 다다라도 그는 안전했고, 공격받을 염려가 없었다.

69:4.5 (775.5) 처음의 저울추는 밀알과 기타 곡식의 낱알이었다. 교환의 처음 매체는 물고기나 염소였다. 나중에 송아지가 물물 교환의 단위가 되었다.

69:4.6 (775.6) 현대의 글자는 초기의 상업 기록에서 생겨났다. 사람의 처음 문서는 장사를 선전하는 기록, 소금 광고였다. 초기에 있던 많은 전쟁은 부싷돌 · 소금 · 금속과 같은 천연 매장물 때문에 일어났다. 맨 처음 맺은 공식(公式) 부족 조약은 소금 매장물을 부족들 사이에 같이 쓰는 것과 관계되었다. 이런 조약 장소는 친절하고 평화롭게 생각을 교환하고 여러 부족이 서로 섞이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69:4.7 (775.7) 글쓰기는 “소식 막대기,” 매듭진 끈, 그림으로 기록하기, 상형 문자, 조가비 띠의 단계를 거쳐서 초기의 상징 알파벳까지 발전했다. 소식(消息) 보내기는 원시적인 연기(煙氣) 신호를 비롯하여, 달리는 사람, 동물 타는 사람, 철로, 비행기까지, 그리고 전보 · 전화, 무선 통신에 이르기까지 진화했다.

69:4.8 (775.8) 고대의 상인이 새로운 생각과 개량된 방법을 사람 사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옮겼다. 모험과 연결하여, 상업은 탐험과 발견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수송을 낳았다. 상업은 문화의 교류를 조장함으로 사람을 문명화시키는 좋은 도구였다.

5. 자본의 시작

69:5.1 (775.9) 자본은 오늘을 포기하고 앞날을 위하여 노동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축은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다. 먹을 것의 저장은 자제(自制)를 개발시켰고, 자본과 노동의 첫 문제를 만들어냈다.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강도로부터 이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뚜렷한 장점을 가졌다.

69:5.2 (775.10) 초기의 은행가는 부족에서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집단의 귀중품을 맡아서 가지고 있었고, 한편 공격 받았을 경우에 씨족 전부가 그의 오두막을 방어하곤 했다. 이처럼 개인의 자본과 집단 재산의 축적은 이내 군대 조직으로 이끌었다. 처음에 그러한 예방책은 바깥의 침공자들로부터 재산을 방어하려고 고안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웃 부족의 재산과 재물을 침략하기 시작함으로 군대 조직을 연습시키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69:5.3 (776.1) 자본의 축적으로 이끈 기본 욕구는 다음과 같다:

69:5.4 (776.2) 1. 배고픔 — 선견과 연결된다. 먹을 것을 저축하고 보존하는 것은 앞날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는 충분한 선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위안을 뜻했다. 식량의 저장은 기근과 재난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이었다. 그리고 원시의 도덕 관습 전체가 정말로,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을 중요시하는 것을 도우려고 고안되어 있다.

69:5.5 (776.3) 2. 가족 사랑 — 가족이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려는 소망. 자본은 앞날의 필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늘의 욕구가 강요하는데도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 앞날의 필요의 얼마큼은 사람의 자손과 상관이 있을지 모른다.

69:5.6 (776.4) 3. 허영심 — 사람이 재산 축적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여벌의 옷은 탁월을 나타내는 첫 표시의 하나였다. 수집하는 허영은 일찍부터 사람의 자존심을 끌었다.

69:5.7 (776.5) 4. 지위 — 돈으로 사회 및 정치적 위신을 사려는 열심. 상업화된 귀족들이 일찍부터 생겨났고, 귀족 계급에 끼는 것은 왕족에게 무슨 특별한 봉사를 해주는 데 달려 있기도 하고, 또는 솔직하게 돈을 낸 댓가로 허락되기도 했다.

69:5.8 (776.6) 5. 권력 — 주인이 되려는 갈망.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서 귀중품의 임대가 행해졌는데, 1년에 100퍼센트가 옛 시절에 이자율이었다. 대금업자는 항상 빚진 자들의 떼를 만들어 자신이 왕이 되었다. 종들은 아주 초기 형태의 축적한 재산이었고, 옛날에는 빚 때문에 생긴 종살이는 죽은 뒤에 몸을 통제하기까지 연장되었다.

69:5.9 (776.7) 6. 죽은 자의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 — 보호를 받으려고 사제에게 내는 요금. 그들이 다음 생명을 거쳐서 나아가는 것을 쉽게 만들기 위하여 재산을 쓰는 목적으로, 사람들은 일찍부터 사제들에게

죽음을 위한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제들은 아주 부자가 되었고, 고대에 으뜸가는 자본가였다.

69:5.10 (776.8) 7. 성욕 — 아내를 하나 또는 여럿 가지려는 욕구. 남자가 처음으로 한 장사의 형태는 여자 교환이었고, 이것은 말을 파는 것보다 훨씬 앞섰다. 그러나 성(性) 노예의 매매는 결코 사회를 진보시키지 않았다. 그러한 장사는 민족의 치욕이었고, 지금도 그러한데, 이는 한꺼번에 그 장사가 가족 생활의 발전을 방해하고, 우수한 민족들의 생물학적 건강을 해쳤기 때문이다.

69:5.11 (776.9) 8. 수많은 형태의 자아 욕구의 충족. 부(富)가 권력을 주니까 더러는 부를 추구했고, 더러는 재산이 편안한 생활을 뜻하기 때문에 재산을 위하여 수고했다. 초기의 사람은 (그리고 후일의 어떤 사람들도) 재산을 사치품에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었다. 취하게 하는 물품과 마약은 원시 종족들의 흥미를 끌었다.

69:5.12 (776.10)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저축하는 새로운 동기를 얻었다. 최초의 배고픔 위에, 새로운 욕구가 빨리 불어났다. 빈곤을 아주 싫어해서, 죽었을 때 부자들만 천국으로 바로 간다고 생각되었다. 재산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허세부리는 잔치는 사람의 이름에서 불명예를 지워버리곤 했다.

69:5.13 (777.1) 재산의 축적은 일찍부터 사회적으로 탁월함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다. 어떤 부족에서는, 개인들이 어떤 휴일에 태우거나 동료 부족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줌으로 감명을 주려고 몇 년 동안 재산을 쌓곤 했다. 이것은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현대의 민족들도 아낌없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흥청거리며, 한편

부자들은 큰 박애 및 교육 기관에 기부한다. 사람의 방법은 다르지만, 그 성향은 아주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69:5.14 (777.2) 그러나 옛날의 많은 부자가 그의 재물을 탐내는 자에게 피살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기록해야 공평하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을 경시하는 것을 보이려고 노예 몇십 명을 잡아 바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69:5.15 (777.3) 자본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자본은 사회 및 산업 조직을 크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부당한 자본가들이 자본을 악용하는 것은 자본이 현대 산업 사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없애지 않는다. 자본과 발명을 통해서 지금 세대는 땅에서 이전에 있던 어떤 세대보다도 더 높은 정도의 자유를 누린다. 생각 없고 이기적인 관리자들이 자본을 많이 악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사실로서 기록한다.

6. 불과 문명의 관계

69:6.1 (777.4) 원시 사회는 네 분과 — 산업 · 규제 · 종교 · 군사 — 와 함께 불 · 동물 · 노예 · 재산을 도구로 씬으로 생겨났다.

69:6.2 (777.5) 불을 피우는 것은, 한 걸음에, 언제까지나 사람과 동물을 구별했다. 불은 인간의 기본 발명, 곧 발견이다. 모든 동물이 불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불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였다. 불은 저녁때 사회적 교제를 북돋았다. 불은 추위와 들짐승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귀신에 대하여 방어 조치로도 쓰였다. 처음에는 열을 얻기보다 빛을 밝히려고 불이 쓰였다.

뒤떨어진 많은 부족은 불빛이 밤새도록 있지 않으면 잠을 자려 하지 않았다.

69:6.3 (777.6) 불은 사람을 교화시키는 좋은 수단이었고, 불을 잃지 않고 타고 있는 목탄을 이웃에게 줌으로 사람에게, 손해 보지 않고 남에게 이익이 되는 수단을 주었다. 어머니나 만딸이 집안의 불을 돌보았고, 불은 사람의 첫 선생이었으며, 경계하는 태도와 신뢰가 요구되었다. 초기의 가정은 건물이 아니었지만, 가족은 불, 가족의 화로 둘레에 모였다. 아들이 새 집을 차렸을 때, 가족의 화로에서 횃불을 가지고 갔다.

69:6.4 (777.7) 불을 발견한 **안돈**은 불을 예배 대상으로 다루기를 피했지만, 그 후손의 다수는 불꽃을 하나의 주물이나 영으로 여겼다. 쓰레기를 태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이 주는 위생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 원시인은 불을 무서워했고, 언제나 불을 기분 좋게 간직하려고 했으며, 따라서 향을 뿌렸다. 어떠한 상황에도 옛날 사람들은 결코 불 속에 침을 뱉거나, 또는 어떤 사람과 타고 있는 불 사이에 지나가려 하지 않았다. 초기의 인류는 불을 지필 때 쓰는 황철광과 부싯돌조차도 성스럽게 여겼다.

69:6.5 (777.8) 불을 끄는 것은 죄였다. 오두막에 불이 붙으면, 타도록 내버려두었다. 성전과 성당에 있는 불은 신성했고, 해마다 또는 어떤 재난이 있는 뒤에 새 불을 지피는 관습을 제외하고, 결코 불이 꺼지도록 버려두지 않았다. 여자들이 집의 불을 관리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사제로 뽑혔다.

69:6.6 (778.1) 불이 어떻게 신들로부터 내려왔는가에 관한 초기의 신화는 번개로 불이 붙는 것을 지켜본 데서 생겼다. 초자연의 기원이 있다는 이 생각은 곧장 배화(拜火)로 이끌었고, 불의 숭배는 “불을

지나가는” 관습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모세**의 시절까지 계속된 풍습이었다. 죽은 뒤에 불을 지나간다는 관념이 아직도 남아 있다. 불의 신화는 초기 시절에 좋은 단결 수단이었고, **파시** 교도의 상징에 아직도 남아 있다.

69:6.7 (778.2) 불은 먹을 것을 익혀 먹게 만들었고, “날로 먹는 사람”은 비웃는 표현이 되었다. 익히는 것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였고, 그래서 초기의 인간에게 사회적 문화를 가질 힘을 얼마큼 남겨 주었다. 한편 동물의 사육은 식량의 확보에 필요한 노력을 줄임으로 사회적 활동을 할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69:6.8 (778.3) 불은 금속 세공(細工)의 길을 열었고, 나중에 증기 동력의 발견과 오늘날 전기의 사용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7. 동물의 이용

69:7.1 (778.4) 우선 첫째로, 동물 세계 전체가 사람의 적이었다. 인간은 자신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처음에 사람은 동물을 먹어 치웠지만, 나중에는 길들이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을 배웠다.

69:7.2 (778.5) 동물 길들이기는 어쩌다가 일어났다. **아메리카 인디안**이 들소를 사냥하는 것과 비슷하게, 야만인은 동물의 떼를 사냥하곤 했다. 야만인은 동물의 떼를 둘러싸서 동물을 통제할 수 있었고, 이처럼 식량에 필요한 대로 동물을 죽일 수 있었다. 나중에는 우리가 건축되었고, 동물의 떼 전체를 사로잡곤 했다.

69:7.3 (778.6) 어떤 동물은 길들이기 쉬웠지만, 많은 동물은 코끼리처럼 사로잡혀 있을 때 새끼를 낳으려 하지 않았다. 후일에 어떤 동물 종자는 사람의 존재에 복종하려 하고 사로잡혀 있어도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동물 길들이기는 좋은 종자를 골라서 사육함으로 진전되었고, 이것은 **달라마시아** 시절 이후로 크게 진보한 기술이었다.

69:7.4 (778.7) 개는 처음으로 길들인 동물이었고, 개를 길들이는 어려운 체험은 어떤 개가 하루 종일 한 사냥꾼 주위를 따라다닌 뒤에 실제로 사냥꾼과 함께 집으로 갔을 때 시작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개는 식용으로, 사냥과 수송에, 그리고 동반하는 동물로 쓰였다. 처음에 개는 이리처럼 울부짖기만 했으나, 나중에 짖기를 배웠다. 개의 날카로운 후각은 개가 영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낳았고, 따라서 개를 주물로 모시는 종파가 생겼다. 망보는 개를 고용한 것은 처음으로 씨족 전체가 밤에 잘 수 있게 만들었다. 다음에 눈에 보이는 적만 아니라 유령으로부터 집을 보호하려고 지키는 개를 이용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개가 짖을 때는 사람이나 짐승이 다가온 것이지만, 개가 길게 울부짖을 때는 유령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었다. 개가 밤에 울부짖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믿는다.

69:7.5 (778.8) 사냥꾼이었을 때 남자는 여자에게 꽤 친절했다. 그러나 동물을 길들인 뒤에, **칼리가스티아**가 일으킨 혼란과 더불어, 많은 부족이 자기네 여자들을 부끄럽게 다루었다. 너무나 남자는 동물을 다루듯이 여자를 대했다. 남자가 여자를 무자비하게 대한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章)의 하나이다.

8. 문명의 한 요소인 노예 제도

69:8.1 (778.9) 원시인은 서슴지 않고 동료들을 종으로 만들었다. 여자는 첫 종, 가족의 종이였다. 목축하는 사람은 여자를 열등한 성(性) 상대인 종으로 만들었다. 이 종류의 성 노예는 남자가 여자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줄어들자, 바로 그 결과로 생겨났다.

69:8.2 (779.1) 바로 얼마 전까지도 정복자의 종교를 받아들여 하지 않는 전쟁 포로들이 노예 처지로 떨어졌다. 그보다 더 전에 포로는 잡아 먹히든지, 고문을 받아 죽든지, 서로 싸우게 되든지, 영들에게 희생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었다. 노예 제도는 학살이나 잡아먹기보다 대단히 진보한 것이다.

69:8.3 (779.2) 노예로 만드는 것은 전쟁 포로를 자비롭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전진한 것이었다. **아이** 성(城)을 취한 복병은^[74]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전멸시키고, 정복자의 허영을 채우려고 임금만 살려 놓았는데, 이것은 문명화되었다고 생각되는 민족들도 실행했던 미개한 학살을 충실히 보여준다. **바산**의 임금 **옥**을 침공한 것은 똑같이 모질고 같은 결과를 낳았다.^[75] **히브리인**은 적을 “남김없이 죽였고,” 그 재산을 모두 전리품으로 가졌다. 그들은 공물을 바치는 모든 도시가, 위반하면 “모든 남자의 죽음”을 각오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부족의 자부심을 덜 가진, 당대의 많은 부족은 우수한 포로를 부족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관습을 시작한 지 오래 된다.

69:8.4 (779.3) **아메리카**의 홍인처럼, 사냥꾼은 노예를 만들지 않았다. 포로를 동료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였다. 목축하는 민족들 사이에는 노예 제도가 유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자가 거의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목자들은 남자 포로를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만 노예로 취했다. **모세**의 법에는 이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만드는 것에 관하여 특정한 지시가 들어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지만, **히브리인**은 그러한 퇴짜맞은 배우자를 노예로

파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 이것은 적어도 문명에서 하나의 진보였다. **히브리인**의 사회 기준은 어설프기는 했지만, 둘레에 있는 부족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다.

69:8.5 (779.4) 목자는 첫 자본가였는데, 가축 떼가 자본이었고, 그들은 그 이자 — 자연 증가분 — 으로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 재산을 노예나 여자들이 관리하라고 맡기기 싫어했다. 그러나 나중에 남자 죄수들을 받았고, 죄수들에게 땅을 갈도록 강요했다. 이것이 농노(農奴) — 땅에 딸린 사람 — 의 첫 기원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는 것을 쉽게 배웠고, 따라서 좋은 노예 종족이 되었다.

69:8.6 (779.5) 노예 제도는 연속되는 인간 문명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고리였다. 노예 제도라는 다리 위로 사회는 혼란과 게으름에서 질서와 문명화된 활동이 있는 곳까지 건너갔다. 노예 제도는 뒤떨어지고 게으른 민족들이 일하도록 강요하고, 따라서 그들보다 우수한 자의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부와 여가를 마련해 주었다.

69:8.7 (779.6) 노예 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시 사회를 규제하는 작용을 발명하도록 강요했으며, 그것은 정부의 시작을 낳았다. 노예 제도는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고, 봉건 영주들이 노예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세(中世)의 **유럽**에서 거의 사라졌다. 고대의 뒤떨어진 부족들은, 오늘날의 **오스트랄리아**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결코 노예를 가지지 않았다.

69:8.8 (779.7) 노예 제도가 사람을 억압한 것은 참말이지만, 억압이라는 학교에서 사람은 부지런함을 배웠다. 노예들은 상급 사회가 생기는 것을 마지못해 도와주었고, 궁극에는 그 사회의 축복을 함께 가졌다. 노예 제도는 문화와 사회적 성취가 있는 조직을 창조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곧, 파괴적인 모든 사회악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며, 안에서 사회를 공격한다.

69:8.9 (779.8) 현대의 기계 발명은 노예를 쓸모 없이 만들었다. 노예 제도는 일부다처와 마찬가지로 수지가 맞지 않아 사라진다. 그러나 큰 무리의 노예를 갑자기 해방하는 것은 재난임이 반드시 입증되었다. 이들이 단계적으로 해방될 때 문제가 덜 따랐다.

69:8.10 (780.1) 오늘날, 사람은 사회의 노예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포부 때문에 빛의 노예로 전락한다. 강제하는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새롭고 개량된 형태로 수정된 산업 노예 상태가 대두되었다.

69:8.11 (780.2) 사회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게으름은 결코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튼튼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모두 적어도 자기가 먹고 살 만큼의 일을 하도록 강요되어야 한다.

69:8.12 (780.3) 현대의 사회는 거꾸로 간다. 노예 제도는 거의 사라졌고, 길들인 동물도 사라져 간다. 문명은 동력을 얻으려고 불 — 무기체의 세계에 — 다시 손을 뻗고 있다. 사람은 불, 동물, 노예 제도를 거쳐서 야만 상태에서 올라왔다. 오늘날 사람은 뒤로 손을 뻗어서, 자연의 원소 창고에서 부와 동력의 새로운 비밀과 근원을 쥐어짜려고 애쓴다.

9. 사유 재산

69:9.1 (780.4) 원시 사회는 거의 공동체였지만, 원시인은 현대 공산주의 신조(信條)를 지키지는 않았다. 이 초기의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론이나 사회적 신조가 아니라, 간단하고 실용적인 자동 조정이었다.

공산주의는 빈궁과 빈곤을 막았고, 이 고대의 부족들은 구걸과 매춘을 거의 알지 못했다.

69:9.2 (780.5) 원시 공산주의는 특히 사람을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았고, 평범을 찬양하지도 않았지만, 비활동과 게으름을 높이 쳐주었다. 그리고 근면을 짓누르고 포부를 죽였다. 공산주의는 원시 사회의 성장에 필수인 임시 발판이었지만, 네 가지 강한 인간의 성향을 거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사회 체제로 진화하도록 길을 비켰다:

69:9.3 (780.6) 1. 가족. 사람은 재산을 쌓기만 바라지 않는다. 사람은 자본이 되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초기의 공산 사회에서, 사람의 자본은 이내 소비되든지, 아니면 죽을 때 집단에 분배되었다. 재산 상속이 없었다 — 상속세가 100퍼센트였다. 나중에 자본을 축적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은 사회의 뚜렷한 진보였다. 그리고 나중에 자본을 잘못 사용함으로 지나친 남용이 따랐는데도, 이것은 참말이다.

69:9.4 (780.7) 2. 종교적 경향. 원시인은 또한 다음 세상에서 생명을 시작하는 토대로서 재산을 저축하고 싶어 했다. 이 동기는 어째서 사람의 개인 소유물을 함께 파묻는 관습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설명한다. 옛날 사람들은 오로지 부자만 즉시 얼마큼이라도 쾌적하고 위엄 있게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믿었다.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 특히 기독교 선생들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와 같은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선포했다.

69:9.5 (780.8) 3. 자유와 여가를 가지고 싶은 소망. 사회가 진화하는 초기 시절에 개인의 소득을 집단에서 나누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종의 노예

제도였다. 일하는 자는 게으른 자에게 노예가 되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자살적 약점이다. 선견이 없는 자는 검소한 자에게 붙어사는 것이 버릇이었다. 현대에도 생각 없는 자는 나라가 (세금을 내는 검소한 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의존한다. 자본이 없는 자는 아직도 자본이 있는 자가 먹여 주기를 바란다.

69:9.6 (780.9) 4. 안전과 권력의 욕구. 진취적이며 성공하는 개인들의 속이는 버릇 때문에 공산주의는 마침내 무너졌는데, 그들은 자기 부족에서 꿈쩍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는 자에게 종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노력으로, 다채로운 핑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처음에 모든 저축은 비밀이었다. 원시의 불안감은 눈에 보이게 자본 축적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후일에도 지나치게 재산을 많이 쌓는 것은 아주 위험했다. 임금은 부자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어떤 죄목을 분명히 만들어 내곤 하였으며, 한 부자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이 공공의 복지나 임금에게 큰 돈, 곧 상속세를 낼 때까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게 막았다.

69:9.7 (781.1) 초기에 여자는 공동체의 재산이었고, 어머니가 가족을 지배했다. 초기의 족장들은 모든 땅을 소유했고, 모든 여자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결혼은 족장의 찬성이 필요했다. 공산주의가 지나가자, 여자들은 개인별로 소유되었고, 아버지는 차츰 가정의 통제권을 쥐었다. 이처럼 가정이 비롯되었고, 지배했던 일부다처 관습은 차츰 일부일처(一夫一妻)로 바뀌었다 (일부다처제는 결혼에서 여자 노예의 요소가 남은 것이다. 일부일처제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기르고, 공동의 문화를 가지고, 자아를 개선하는 아름다운 기업에서 생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 노예가 없는, 비할 데 없이 이상적인 관계이다.)

69:9.8 (781.2) 처음에는 연장과 무기(武器)를 포함해서, 모든 재산이 부족의 공동 재산이었다. 처음에는 몸소 만진 모든 물건이 사유 재산이었다. 낫선 사람이 한 컵으로 마시면, 그때부터 그 컵은 그의 것이었다. 다음에 피가 흘린 곳은 어디나, 다친 그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이 되었다.

69:9.9 (781.3) 사유 재산은 그 소유자의 인격의 일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처음부터 존중받았다. 재산에 대하여 사람이 정직한 것은 이 종류의 미신에 안전한 근거를 두었다. 아무런 경찰이 개인의 소유물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집단 안에서는 아무런 도둑질이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부족의 물건을 취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재산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일찍부터 개인의 소유물을 불에 태우고 죽은 자와 함께 파묻었으며, 나중에는 남아 있는 가족이나 부족이 이를 물려받았다.

69:9.10 (781.4) 치장하는 종류의 개인 소유물은 부적을 달고 다니는 데서 생겨났다. 허영에 더하여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은 원시인이 가장 좋아하는 부적을 벗게 만들려는 온갖 시도를 물리치도록 만들었고, 그러한 재산은 필수품보다 더 귀중하게 평가되었다.

69:9.11 (781.5) 잠자는 자리는 아주 일찍부터 사람의 한 재산이었다. 나중에 부족의 추장이 집터를 배정하였고, 추장은 집단을 위해서 모든 부동산을 관리했다. 이내, 불 피는 자리는 소유권을 부여하였고, 그 뒤에 우물은 인접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었다.

69:9.12 (781.6) 물웅덩이와 우물은 첫 사유 재산에 속했다. 주물 관습 전부가 물웅덩이 · 우물 · 나무 · 농작물 · 꿀을 지키는 데 이용되었다. 주물에 대한 믿음을 잃고 나서, 법이 개인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화되었다. 그러나 사냥 법, 곧 사냥하는 권리는 토지법을 훨씬

앞섰다. **아메리카**의 홍인은 결코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이해하지 못했다. 홍인은 백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69:9.13 (781.7) 사유 재산은 일찍부터 가족의 문장(紋章)으로 표시되었는데, 이것이 가족 문장의 초기 기원이다. 부동산은 또한 영들의 감시를 받게 할 수 있었다. 사제들은 한 조각의 땅을 “거룩히 바치고,” 그러면 그 땅은 그 위에 세운 요술 금기(禁忌)의 보호를 받곤 했다. 금기의 소유자는 “사제의 증서”를 가졌다고 했다. **히브리인**은 이 가족 땅의 경계 표지를 크게 존중했다. “이웃의 경계 표지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표시하는 돌덩이는 사제의 머리 글자를 가졌다. 머리 글자로 표시했을 때는 나무조차도 사유 재산이 되었다.

69:9.14 (782.1) 옛날에는 농작물만 사유(私有)가 되었으나, 연속해서 거두는 농작물은 소유권을 부여했다. 이처럼 농업은 개인 토지 소유권의 유래가 되었다. 개인들은 처음에 종신 소유권을 받았다. 죽을 때 땅은 부족에게 되돌아갔다. 부족이 개인에게 수여한 최초의 토지 소유권은 무덤 — 가족을 묻는 땅이었다. 후일에 땅은 울타리를 친 자에게 속했다. 그러나 도시는 언제나 어떤 땅을 공유 목초지로서, 그리고 포위되었을 때 쓰려고 남겨 놓았다. 이런 “공유지”는 초기 형태의 집단 소유권이 남은 것이다.

69:9.15 (782.2) 결국에는 나라가 재산권을 개인에게 나누어 주었고,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유보하였다. 이 소유권을 확보해 놓고서, 지주들은 임대료를 걷을 수 있었고, 토지는 소득의 한 근원 — 자본이 — 되었다. 마침내 땅은 정말로 매매(賣買) · 이전(移轉) · 저당, 권리 상실과 함께, 남에게 양도할 수 있었다.

69:9.16 (782.3) 사유 재산권은 자유를 늘이고 안정성을 높였다. 그러나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공동체의 통제와 지도가 실패했을 경우에만 사회의 인가를 받았고, 곧 노예 · 농노, 그리고 땅을 가지지 못한

계급이 뒤이어 따랐다. 그러나 개량된 기계는 차츰 종이 하는 고된
일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고 있다.

69:9.17 (782.4) 재산권은 절대적이 아니고, 순전히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부 · 법 · 질서, 그리고 현대 민족들이 즐기는 시민의
권리, 사회적 자유, 관습 · 평화 · 행복은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성장했다.

69:9.18 (782.5) 현재의 사회 질서가 반드시 옳지는 — 신성하거나
거룩하지 — 않다. 그러나 인류는 개정하는 일을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 조상이 알고 있는 어떤
제도보다도 엄청나게 더 좋다. 너희가 사회 질서를 바꿀 때는 반드시
더 낮게 바꾸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조들이 버린 형식을 가지고 실험할
생각을 가지지 말라.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진화가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뒷걸음을 하지 말지어다.

69:9.19 (782.6)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했다.]

[73]: 69:3.5 흰 대장장이는 밝은 빛의 양철을 다루고, 검은 대장장이는
검은 철을 다루는 데서 나온 명칭이다.

[74]: 69:8.3 **여호수아** 8장.

[75]: 69:8.3 신명기 3장.
